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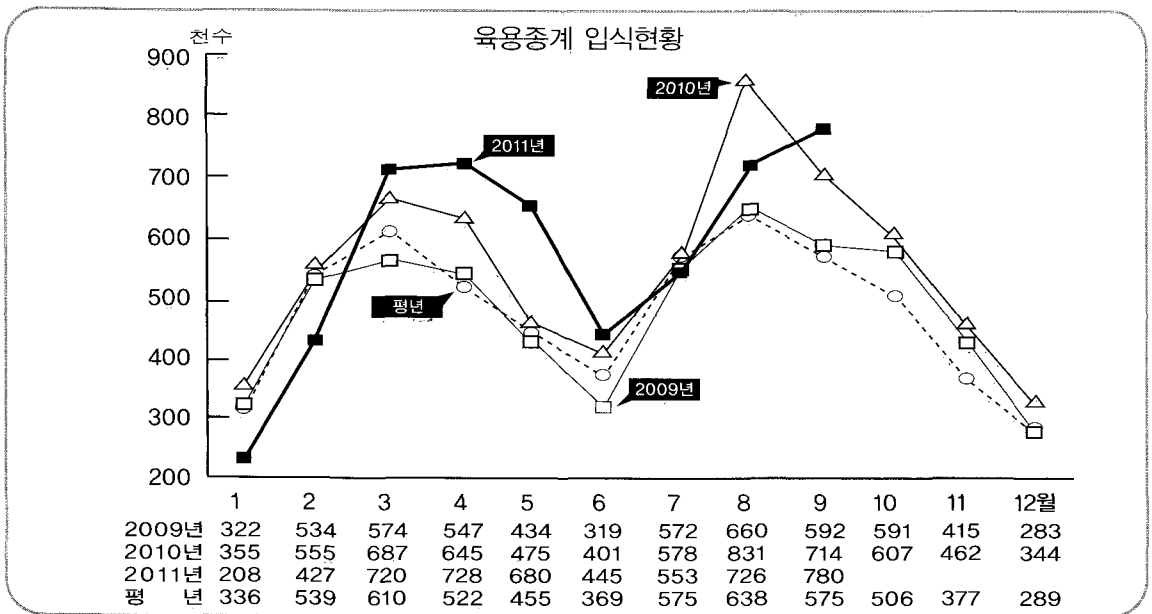


11월 닭고기 수급 전망

1. 육용종계 입식현황

■ 9월 육용종계 입식수수 전년동기대비 9.3% 증가

- 지난 9월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78만1천수로 전년동기(71만3천6백수)대비 9.3% 증가했으며, 이는 평년수준(57만5천수)대비 35.7% 증가한 수준이다(8월 72만6천수 대비 7.5% 증가).
- 육용종계 입식수수가 전년동기 및 평년수준보다 증가한 것은 최근 일부 월종계 업체와 원종계 입추일정이 지연되면서 생산주기가 조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이같은 상황은 10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당분간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

※주 : 평년은 2006~2010년의 입식수수 중 최대, 최소를 뺀 평균

※자료 : 대한양계협회

2. 배합사료 생산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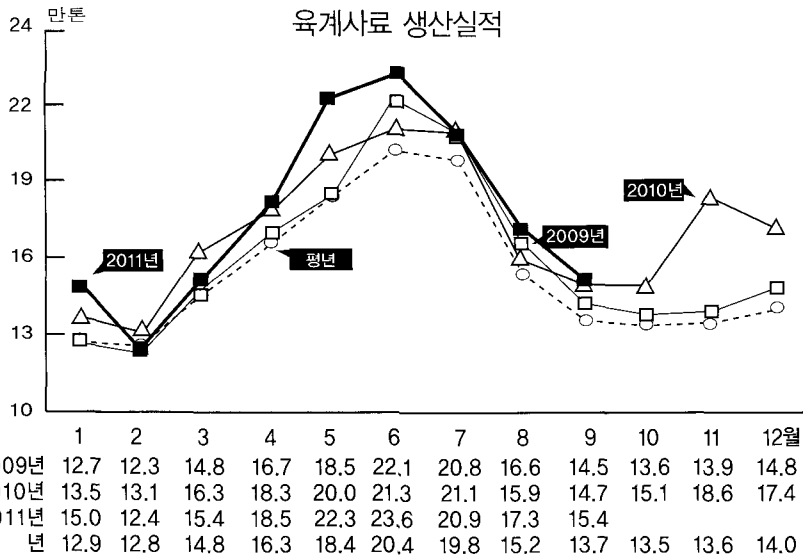
■ 11월 사육수수 전년동기보다 증가 전망

- 11월 닭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9월 육용종계 사료 생산량은 23,120톤으로 전년동월(21,839톤) 대비 5.9% 증가했으며, 전월(22,447톤) 대비해서도 3.0% 증가했다. 이는 2/4분기에 전년대비 증가했던 종계계군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가담하기 시작하고 있고 환우계군도 평상시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며, 생산성 하락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- 한편 9월 육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154,391톤으로 전년동월(146,944톤) 대비 5.1% 증가했으며, 전월(172,852톤) 대비해서는 10.7% 감소했다. 11월 육계사육 마리수는 생산가담 종계계군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겠으나 생산성이 다소 하락해 증가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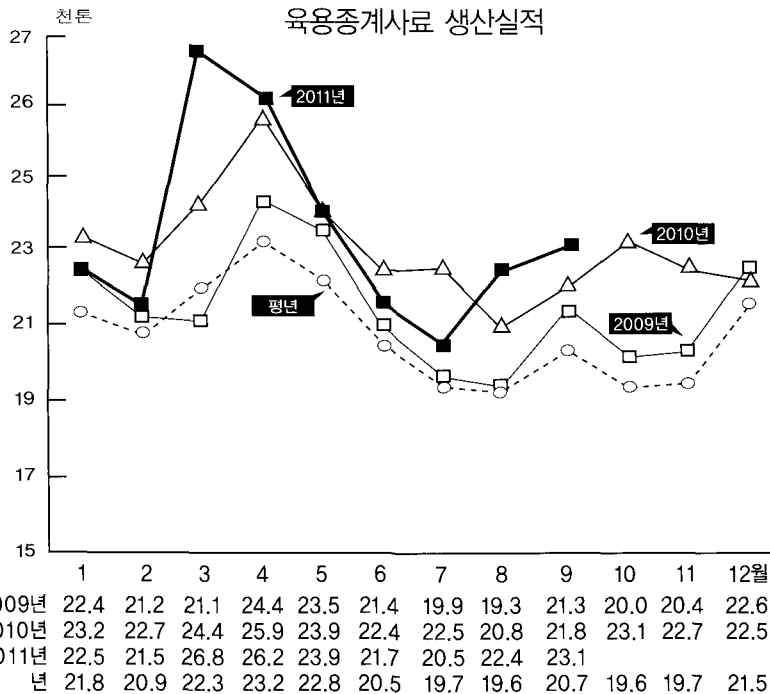
통계

11월 닭고기 수급 전망



※주 : 평년은 2006~2010년의 생산량 중 최대, 최소를 뺀 평균

※자료 : 농림수산식품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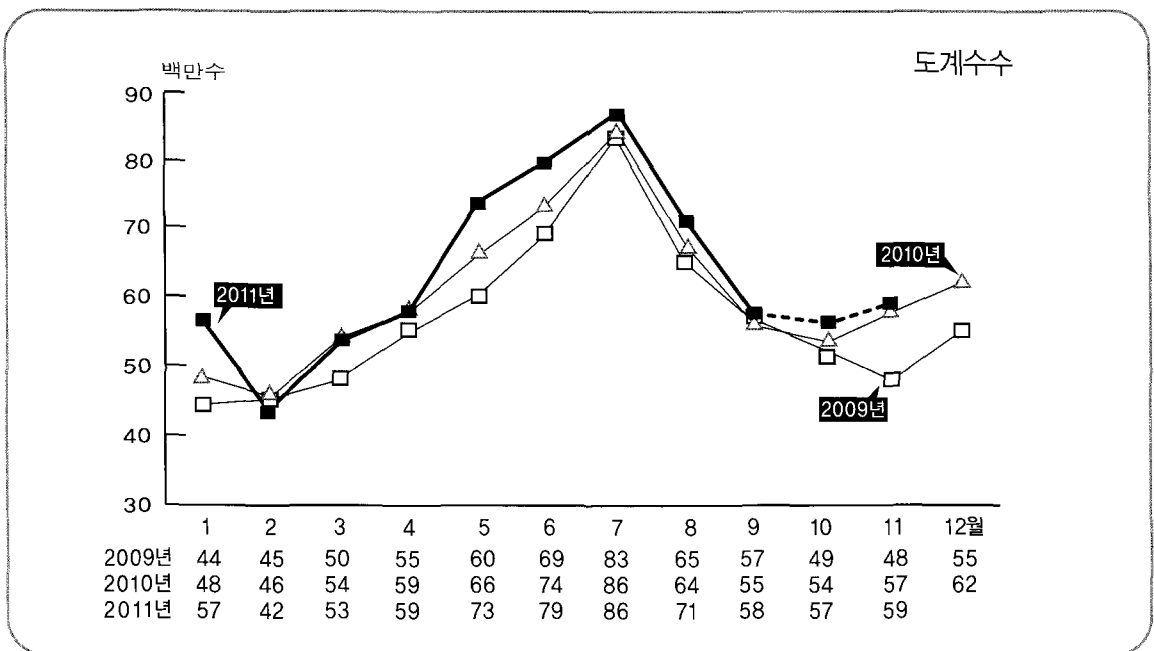
※주 : 평년은 2006~2010년의 생산량 중 최대, 최소를 뺀 평균

※자료 : 농림수산식품부

3. 도계수수

■ 11월 도계수수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

- 지난 9월의 도계수수는 5,792만수로 전년동월(5,518만수) 대비 5.0% 증가했으며, 전월(7,103만수) 대비해서는 18.5% 감소했다.
- 11월에는 육계 사육마리수 증가로 도계수수 역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계수수는 5,882만수로 전년(5,680만수)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

※자료 : 농림수산물부(2011년 10~11월은 농경연 추정 및 전망치)

4. 닭고기 수입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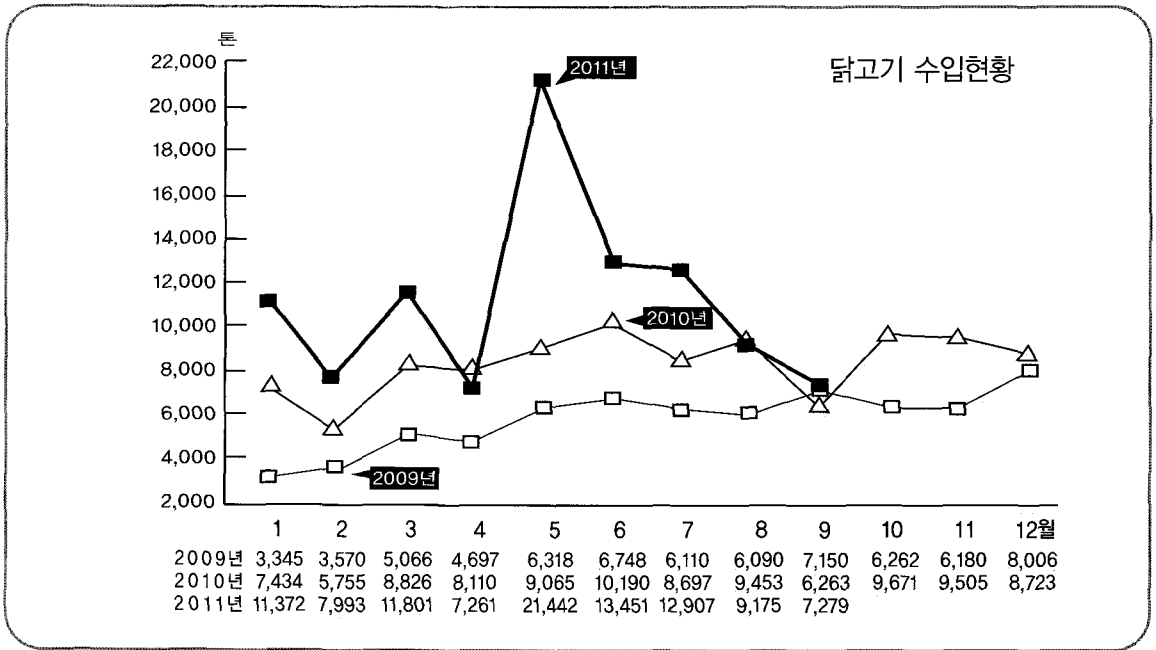
■ 11월 닭고기 수입량 전년대비 감소 예상

- 지난 9월에는 7,279톤이 수입되어 전년동월(6,263톤) 대비 16.2% 증가했으며, 전월(9,175톤) 대비해서는 20.7% 감소했다. 검역기준 수입량은 4,747톤으로 전년동월(10,212톤) 대비 53.5% 감소했으며, 전월(9,680톤) 대비해서도 51.0% 감소했다.
- 최근 수출국의 가격인상과 환율인상으로 국내 수입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국내산의 가격도 여름 성수기 이후 낮게 형성되면서 11월에도 수입량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

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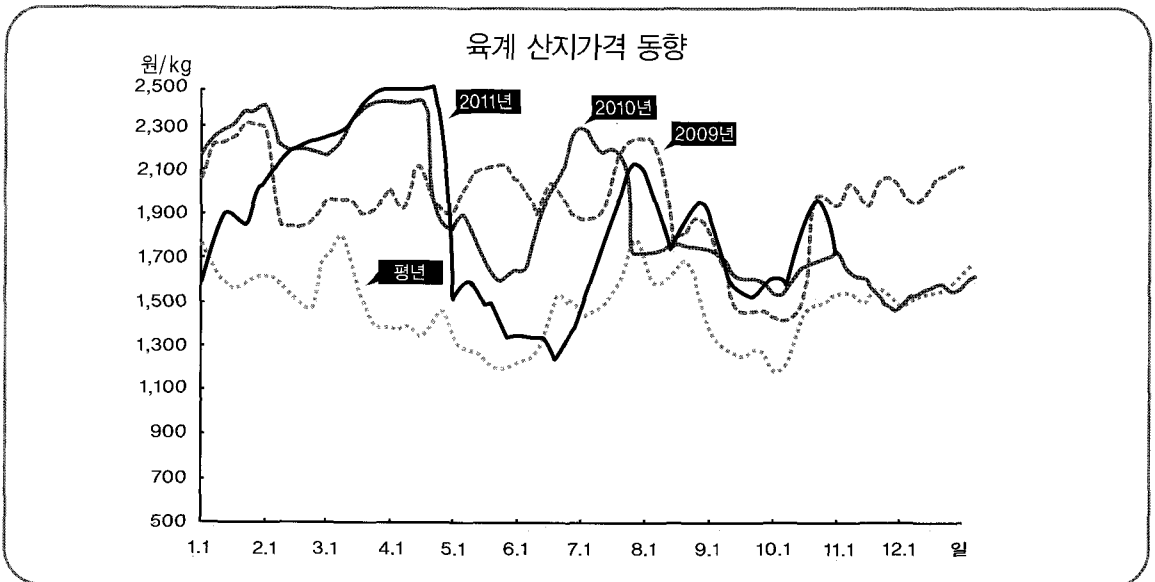
11월 닭고기 수급 전망



*자료 : 농수산물무역정보

5. 가격동향

■ 11월 육계산지가격 평균 1,500~1,700원 전망



*주 : 평년은 2006~2010년의 가격 중 최대, 최소를 뺀 평균

*자료 : 농협, 축산물 가격정보(5일 이동평균가격)

- 지난 10월에는 물량은 소폭 증가했으나 추석을 전후해서 소비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10월(1~28일)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1,767원을 나타냈다(전년 10월 1,647원보다 7.3% 상승, 평년가격 1,425원보다는 24.0% 상승, 전월 1,644원 보다 7.5% 상승).
- 11월의 경우 수입량은 감소하겠지만 냉동비축물량이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사육 및 도계마리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급량은 늘어나는 반면 소비는 비수기로에 해당하며 김장철 수요감소까지 겹치면서 소비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시세는 약세를 보이며 전년보다 하락한 1,500~1,7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(전년 11월 가격은 1,608원, 평년가격은 1,554원).

6. 수급자료

〈육계 및 삼계 입식·비축현황〉

(단위 : 천수)

기간	육계						삼계					
	입식			비축			입식			비축		
	2010년	2011년	전년대비	2010년	2011년	전년대비	2010년	2011년	전년대비	2010년	2011년	전년대비
9. 12~9. 18	7,857	7,857	100.0%	3,668	5,097	139.0%	1,430	1,470	102.8%	465	2,555	549.5%
9. 19~9. 25	7,430	8,194	110.3%	3,737	5,155	137.9%	1,335	1,520	113.9%	479	2,598	542.4%
9. 26~10. 2	7,727	8,157	105.6%	3,770	4,961	131.6%	1,464	1,535	104.8%	479	2,522	526.5%
10. 3~10. 9	7,746	7,942	102.5%	3,698	4,885	132.1%	1,470	1,445	98.3%	471	2,458	521.9%
10. 10~10. 16	7,778	8,006	102.9%	3,676	4,476	121.8%	1,430	1,370	95.8%	510	2,381	466.9%

7. 결론

- 11월에는 수입물량은 감소하지만 비축물량이 시 상황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생산량도 증가해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비는 김장철 등 비수기에 해당해 시세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산지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,500원~1,7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다만, 신규생산가담 종계의 생산성의 변동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될 것으로 보이며, 날씨의 영향으로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. 🐔
- 시세변동요인

구분	생산(공급) 측면	소비(수요) 측면
인상요인	- 일교차로 인한 생산성 저하 - 사료가격 인상 - 수입물량 감소	- 별다른 소비증가 요인 없음
하락요인	- 생산물량 전년대비 증가 - 냉동비축 물량 증가	- 비수기로 소비 감소하는 시기 - 김장철 수요 감소